

## 스룹바벨 신탁 본문들의 신학적 기능: 구조분석과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정석규(서울한영대)

### 1. 들어가는 글

구약성서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총 21회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10회는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에, 11회는 소예언서인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온다. 역대기에는 족보(대상 3:19, 2회)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포로 귀환자의 명단(스 2:2; 느 7:7; 12:1)과 성전재건과 연관된 기사들(스 3:2, 8; 4:2, 3; 5:2; 느 12:47)에 등장한다. 그리고 소예언서인 학개서에는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재건과 연관된 야웨의 신탁을 받는 대상으로 주로 언급된다(학 1:1, 12, 14; 2:2, 4). 그러나 학개 2장 20-23절(2:21, 23)과 스가랴 4장 1-14절(4:6, 7, 9, 10)에 반복되는 언급들은 앞에서 제시한 문맥들과는 다르게, 스룹바벨에 대한 신탁(학 2:20-23)과 스룹바벨과 연관된 환상 기사(스 4:1-14)라는 스룹바벨을 주제로 하는 독립된 문학적 단위들 안에서 등장한다.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어진 스룹바벨에 대한 신탁은 그를 통해 다

www.kci.go.kr

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학 2:23). 그리고 스가라가 본 환상 기사에서 스룹바벨은 성전 기초뿐만 아니라 완공까지 감당하는 인물로 제시된다(속 4:9). 즉 이 두 본문들에서 스룹바벨은 다윗계 약의 두 축인 다윗 왕조의 영속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써의 성전을 회복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두 약속은 스룹바벨 시대에 역사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았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를 복원하지 못했고,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성전을 완공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sup>1</sup>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담긴 텍스트는 구약성서인 정경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 본 논문은 스룹바벨에 대한 미성취된 예언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룹바벨에 대한 두 본문(학 2:20-23; 속 4:1-14)을 본문의 전후 문맥과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통해 분석하여 신학적 의도 또는 기능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는 상호 연관성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프랑스 기호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

---

1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스 2장), 제단을 지었고(스 3:2)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성전 봉헌식의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있다(참조. 스 6:13-22). 스룹바벨이 성전 봉헌식 명단에 빠진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가 성전을 완공하는 사역에 주요 인물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 봉헌의식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포로 후기 시대와 관련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스가라서에서도 성전 봉헌과 연관된 환상에서 스룹바벨은 등장하지 않고 제사장인 여호수아만 나온다(속 6:9-15). 성전 봉헌의식에 스룹바벨의 부재는 아마 그가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지만 현재의 사료를 근거로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 이 주제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R. J. Coggins, *Haggai, Zechariah, Malachi* (Old Testament Guides; Sheffield: JSOT Press, 1987), 11-15, 46-48;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124;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제25권 4호 (2019년 12월), 349-353.

바(Julia Kristeva)가 처음 사용한 이래,<sup>2</sup> 성서해석방법으로도 확대되었다. 구약성서해석과 관련하여 피쉬벤(M. Fishbane)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의 진행 과정을 연구하면서, 이전의 전통 또는 텍스트가 이후의 전통 또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지 다루고 있다.<sup>3</sup> 샌더스(James A. Sanders)도 이전의 텍스트가 이후의 전통 또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에 대하여 다루는 상호텍스트성을 주로 다루면서, 사본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통시적인 상호텍스트성을 반영한 정경화 과정으로 이해한다.<sup>4</sup> 이와 같이 지금까지 성서해석학에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은 주로 이전 전통이나 텍스트가 이후의 전통 또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에 대하여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샌더스는 구약성서해석과 관련하여 상호텍스트성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sup>5</sup> 1) 근접해 있는 두 문단 사이의 관계; 2) 이전 본문 또는 전통과 이후 본문 또는 전통 사이의 관계; 3) 본문과 독자 사이의 관계. 즉 상호텍스트성은 이전

2 Julia Kristeva,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L'avant-Garde À La Fin Du Xixe Siècle, Lautréamont Et Mallarmé* (Paris: Éditions du Seuil, 1974); 이 책의 요약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시적 언어의 혁명」김인환 역 (문예신서 153; 서울: 동문선, 2000).

3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4 샌더스는 그의 경전비평(canonical criticism)에 대한 이론에서, 해석학(Hermeneutics)이란 이전에 주어졌던 텍스트를 전수받은 신앙공동체가 그들의 사회적이며 역사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James A. Sanders, *Torah and Can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idem, *Canon and Community: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성서학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Daniel Boyarin, *Intertextuality and the Reading of Midra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정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11권 (2001년, 10월), 49-70; 박경식, “예언서의 사회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구약논단」 제27권 3호 (2021년 9월), 216-247.

5 Sanders, “Intertextuality and Canon,” in *On the Way to Nineveh: Studies in Honor of George M. Landes* (ed. Stephen L. Cook and S. C. Winter; Atlanta: Scholars Press, 1999), 316.

본문과 이후 본문들 사이의 통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최종형태의 텍스트들 사이의 공시적인 관계, 더 나아가 본문과 독자와의 관계까지도 포함한다.

본 논문은 이전의 텍스트가 이후의 텍스트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는 통시적 접근보다는, 서로 근접한 최종형태의 본문들 사이의 관계를 공시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스룹바벨에 대한 두 본문(학 2:20-23; 수 4:1-14)을 다룰 것이다. 비록 스룹바벨에 대한 신탁 본문들에 있는 약속들이 스룹바벨이 활동했던 동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신탁 본문들을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문맥 속에서 상호텍스트성의 방법으로 살펴봄으로 그 본문들의 신학적 의미와 기능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스룹바벨에 대한 신탁 본문(학 2:20-23)과 스룹바벨과 연관된 환상 본문(수 4:1-14)을 구조분석 방법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각 본문의 신학적 강조점과 문학적 특징들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분석 방법을 통해 발견한 본문의 강조점과 특징들을 본문들과 근접한 연관 텍스트들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각 본문들의 신학적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 2. 학개서에 나타난 스룹바벨 신탁(학 2:20-23)

### 1) 학개서 전체 속에서 스룹바벨 신탁의 문학적 자리

학개서는 예언자 학개가 야웨의 말씀을 받은 시기가 언급된 표제(1:1; 1:15-2:1, 10, 20)들과 함께 시작되는 네 개의 신탁으로 구성된다:

1)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첫째 날에 주어진 성전재건의 촉구에 대한 신탁(1:1-15a); 2) 다리오 왕 제2년 일곱째 달 이십일일(1:15b-2:1)에 주어진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신탁(1:15b-2:9); 3) 다리오 왕 제2년

www.kci.go.kr

아홉째 달 이십사일(2:10)에 주어진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의 신탁(2:10-19); 4) 제2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2:20)에 주어진 스룹바벨 신탁(2:20-23). 그러나 앞의 세 신탁들은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반면, 넷째 신탁은 셋째 신탁과 동일한 날에 주어진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넷째 신탁만 “다리오 왕 제이년”이라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앞의 세 신탁들과 넷째 신탁은 구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이해는 각 신탁이 다루는 주제의 측면에서도 일치한다. 앞의 세 신탁들은 모두 성전 재건 또는 재건된 성전에서 이루어질 소망과 가르침을 다루는 반면, 넷째 신탁(2:20-23)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왕조가 회복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비록 성전과 다윗 왕조는 다윗 계약의 두 축(참조. 삼하 7:8-17; 시 132:11-14)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완전히 별개의 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참조. 시 132편), 세부 주제 측면에서 넷째 신탁은 성전재건의 주제를 다루는 앞의 세 신탁들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러한 내용적이며 형식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학개서는 앞의 세 신탁들을 다루는 단락(1:1-2:19)과 넷째 신탁을 다루는 단락(2:20-23)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다.

## 2) 스룹바벨 신탁 단락(학 2:20-23)의 구조분석

학개서 2장 20-23절은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구원 신탁 단락이다. 이 단락은 다음의 구조와 같이 구성된다.<sup>6</sup>

6 구조분석에서 분절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분리 액센트’(disjunctive accent)에 따른 것이다. 분절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정석규, 「구약성경의 구조분석: 방법과 사례」(서울: 도서출판세영, 2020), 59-60.

A. 표제 및 이야기 도입부	2:20
B. 신탁의 내용	2:21-23
1. 스룹바벨에게 말하라는 야웨의 명령	2:21a
2.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자체	2:21b-23
a. 야웨께서 행하실 역사	2:21b-22
1) 일반적 표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심	2:21b
2) 구체적 표현: 열국과 그 군대를 멸하심	2:22
a) 열국을 멸하심	2:22a
(1) 열국의 보좌를 멸하심	2:22aα
(2-1') 열국의 세력을 멸하심	2:22aβ
b) 열국의 군대를 멸하심	2:22b
(1) 병거와 기병을 멸하심	2:22bα
(2-1') 말과 기병이 동료의 칼로 멸망됨	2:22bβ
b. 야웨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직접적 약속	2:23
1) 약속이 성취될 날	2:23aα
a) 그 날에	2:23aα1
b) 신탁 문체	2:23aα2
2) 일반적 약속	2:23aβ
a)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취할 것이다	2:23aβ1
b) 신탁 문체	2:23aβ2
3) 구체적 약속	2:23b
a) 인장을 삼켰다는 약속	2:23bα
(1) 약속 자체	2:23bα1
(2) 약속의 이유: 야웨의 선택	2:23bα2
b) 신탁 문체	2:23bβ

스룹바벨 신탁 본문은 크게 표제 및 이야기 도입부를 다루는 첫째 대문단(2:20)과 학개를 통해 선포된 신탁의 내용을 다루는 둘째 대문단(2:21-23)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문단은 이 신탁의 기본 정보를 밝힌다. 이 신탁은 그 달 이십사일에 야웨께서 예언자 학개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다(2:20). 스룹바벨과 연관된 네 번째 신탁이 성전과 연관된 세 번째 신탁(2:10-19)과 동일한 날에 주어졌다는 것은, 스룹바벨 신탁을 성전 봉헌과 연관하여 생각하라는 수사학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스룹바벨 신탁이 주어졌던 날은 야웨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즉 성전 봉헌의식이 있었던 날이었다(참조. 2:18).

스룹바벨에 대한 신탁의 내용을 다루는 둘째 대문단(2:21-23)은 글의 형식에 따라 야웨께서 학개에게 스룹바벨에게 대언하라는 명령을 다루는 첫째 소문단(2:21a)과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전달된 야웨의 말씀을 다루는 둘째 소문단(2:21b-23)으로 구성된다. 둘째 소문단(2:21b-23)은 내용에 따라 야웨께서 행하실 역사를 다루는 첫째 미세문단(2:21b-22)과 야웨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직접적 약속을 다루는 둘째 미세문단(2:23)으로 짜인다.

첫째 미세문단(2:21b-22)은 야웨께서 행하실 역사가 일반적인 표현(2:21b)에서 구체적인 표현(2:22)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제시된다. 야웨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2:21b). 이 표현은 학개의 두 번째 신탁에서 야웨께서 재건될 성전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활동하시는 모습과 매우 흡사한데(참조. 2:6), 이는 야웨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실 약속이 야웨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재건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암시한다. 구약성서 전체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모습으로 종종 언급된다(참조. 출 19:16-19 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대부분 구원 또는 심판을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도 이 말씀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진다(2:22). 열국에 대한 야웨의

심판은 위의 구조도표에서 보여주듯 병행구조로 표현된 두 단위로 구성되는데, 두 단위는 각각 ‘파괴하다’(פָּקַד, 하파크)라는 용어로 시작됨으로 서로 연결된다. 첫째 단위(2:22a)에서 야웨의 심판은 야웨께서 열국의 보좌를 파괴하시고(2:22aα)<sup>7</sup>, 열국의 세력을 멸하실 것(2:22aβ)이라는 병행 구조로 묘사된다. 이 병행 문구에는 ‘열국’(מַמְלָכָה, 맘라카)이라는 용어가 반복된다. 둘째 단위(2:22b)는 야웨의 심판이 열국의 군대를 멸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 단위도 야웨께서 병거와 기병을 었드러뜨리고(2:22bα), 말과 기병을 동료의 칼로 죽게 한다(2:22bβ)는 유사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 병행구조로 제시된다. 이 병행 문구에는 ‘탄 자’라는 용어가 ‘타다’(כָּבַד, 라카브)라는 동사의 분사형태로 반복된다. 말과 기병을 격퇴시킨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야웨께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문맥에 나타난다(참조. 출 15:19, 21). 그러므로 열국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이어서 나타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든다.

야웨께서 열국의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신탁을 다루는 첫째 미세문단(2:21b-22)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직접적인 구원의 말씀을 다루는 둘째 미세문단(2:23)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둘째 미세문단은 위의 구조도표에서 보여주듯, ‘야웨가 말하노라’(יְהוָה אָמַר, 네움 야웨)라는 ‘신탁 문체’로 각각 마무리되는 세 단위로 구성된다. 첫째 단위(2:23aα)는 완전한 문장들 후에 신탁문체가 주어지는 둘째와 셋째 단위와는 달리, ‘그 날’(הַיּוֹם הַהוּא, 바움 하후)이라는 간단한 문구 후에 신탁문체가 놓이는 독특성을 통해 강조된다. ‘바움 하후’(הַיּוֹם הַהוּא, 그 날)이

7 “열국의 보좌”를 예언자 학개 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로 이해하여, 열국의 보좌를 멸한다는 신탁을 페르시아를 전복시키는 정치적 언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상의 권력을 가리키는 환유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J. Kessler, *The Book of Haggai: Prophecy and Society in Early Persian Yehud* (VTSup. 91; Leiden: E. J. Brill, 2002), 223.

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야웨의 날’과 연관하여 주로 사용되는데(참조. 호 2:16 등), 학개서에서는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sup>8</sup> 이러한 문학적 독특성을 통해 ‘그 날’(אִתְּךָ יְיָ, 바욘 하후)이라는 문구는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약속(2:23)에서 핵심 주 제어의 기능을 한다.

둘째 단위(2:23aβ)는 스룹바벨에 대해 주어진 약속을 일반적인 형태인, ‘야웨께서는 스룹바벨을 취할 것이다’라고 제시한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내 중”(אִתְּךָ, 아브디)이라고 불린다. 이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된다(족장[출 32:13; 신 9:27], 아브라함[창 26:24; 시 105:6], 이삭[창 26:19]; 모세[출 14:31; 민 12:7; 신 34:5], 여호수아[수 24:29]; 욥[욥 1:8], 다윗[삼하 3:18; 7:5; 왕상 11:32, 34, 36, 38], 히스기야[대하 32:16] 등). 학개서에서 스룹바벨도 성전재건의 핵심 인물과 다윗 왕족으로 언급되기에 이 호칭에 적합하다(1:1, 12, 14; 2:2, 4, 21, 23).

셋째 단위(2:23b)는 선형구조로 구성된 둘째 미세문단(2:23)에서 가장 뒤에 배열되는 구조적 특징, 그리고 약속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이유가 접속사 ‘키’(כִּי, 왜냐하면)와 함께 보충적으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이 미세문단의 핵심 단위라 할 수 있다. 셋째 단위는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아주실 것이고, 그 이유가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장’(אֶמְטָה, 호탐)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구약성서에서 총 14회 나타난다(창 38:18; 출 28:11, 21, 36; 39:6, 14, 30; 왕상 21:8; 욥 38:14; 41:7; 아 8:6×2; 렘 22:24; 학 2:23). ‘인장’이란 어떤 행동을 보증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며, 대리인에게 합법적 권한을 위임

8 이 표현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Simon J. DeVries, *From Old Revelation to New*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89), 38-63.

하는 기능을 한다(참조. 왕상 21:8; 스 3:10; 8:2; 렘 22:10-44 등).<sup>9</sup>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약속은 그의 조부인 여호야긴에 대한 예레미야의 신탁과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바벨론의 왕 느브갓네살에게 던져 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렘 22:24-25), 본문은 그 예언을 역으로 표현하여 스룹바벨이 그 인장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호야긴의 통치 때 느브갓네살에 의해 멸망된 다윗 왕조를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야웨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택하다’는 히브리어 ‘바하르’(בָּחַר)는 신명기적 역사와 역대기에서 다윗과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선택과 연관하여 주로 사용된다(신 7:6; 12:5; 14:23; 17:15; 18:6; 왕하 21:7; 23:27; 대상 28:4, 5, 6; 대하 6:5-6; 7:12 등). 그러므로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를 성전을 지을 자로, 더 나아가 다윗 통치의 후계자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참조. 삼상 10:23; 16:8, 9, 10; 삼하 6:21; 왕상 8:16; 대하 6:6; 등). 역사적으로 야웨의 성전은 주전 515년에 재건되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시대에 다윗 왕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문은 성취되지 않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된다.

9 인장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Bonnie Magness-Gardiner, "Seals, Mesopotamian," *ABD* V: 1062-1064.

### 3. 스가랴서에 나타난 스룹바벨 환상

#### 1) 스가랴서 전체에서의 스룹바벨 환상의 자리

스가랴서는 표제(1:1)와 이어지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2부로 구성된다: 1) 회개와 비전, 그리고 회복의 약속(1:2-8:23); 2) 종말론적 말씀(9:1-14:21). 1부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다루는 첫째 단락(1:2-6)과 미래의 새 시대에 대한 약속을 다루는 셋째 단락(6:9-8:23)을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배열된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을 다루는 둘째 단락(1:7-6:8)으로 구성된다. 환상 단락(1:7-6:8)은 “내가 눈을 들어 보니”(אֲנִי נִשְׁבַּח וְרָאִיתִי [보에사 에이나 보에레], 2:1, 5; 5:1, 9; 6:1)라는 전형적인 환상 소개 문구와 약간 변형된 환상 소개 문구<sup>10</sup>로 시작되는 8개의 대문단이 다음과 같이 교차대구구조로 배열된다.<sup>11</sup>

10 그 외의 환상들에는 환상 소개 문구가 “내가 보니”(אֲנִי רָאִיתִי, 1:8; 4:2)와 “내게 보이시니라”(רָאִיתִי אֵלַי, 3:1) 등으로 표현된다.

11 Joyce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ion & Commentary* (TOTC; Downers Grove, IL: IVP, 1972), 80-81;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2 (Berit Olam;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574-634. 그러나 돌시 (Dorsey)는 환상 본문에 나타난 수사학적 장치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7개의 문단이 교차대구구조로 배열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 네 기마병과 그의 군대: 땅에 두루 다님(1:7-2:4); 2) 남자와 측량줄: 열방에 대한 심판(2:5-17); 3) 야웨의 집(성전)의 정화(3:1-10); 4)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연관하여(4:1-14); 5) 죄인의 집은 저주를 받음: 온 땅에 대한 저주 제거(5:1-4); 6) 여인과 측량 예바: 바벨론의 심판(5:5-11); 7) 네 병거와 그 말들: 땅에 두루 다님(6:1-8). Davi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318.

A. 네 기마병과 그의 군대: 회복의 약속(땅에 두루 다니는 자)	1:7-17
B.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열방에 대한 심판	2:1-4 <sup>12</sup>
C. 남자와 측량줄: 예루살렘의 저주 제거	2:5-17
D. 더러운 옷에서 정결한 옷으로: 여호수아와 연관하여	3:1-10
D'.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연관하여	4:1-14
C'. 날아가는 두루마리: 온 땅에 대한 저주 제거	5:1-4
B'. 에바 속의 여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	5:5-11
A'. 네 병거와 그 말들: 회복의 영(땅에 두루 다니는 말)	6:1-8

위의 구조에서 보여주듯 환상 단락은 땅에 두루 다니는 야웨의 말과 병거의 환상을 통해 회복의 약속과 영을 다루는 첫째와 여덟째 대문단(1:7-17; 6:18)을 외부 테두리(*inclusio*)로 하여 형성됨으로 환상 단락이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응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단락의 중앙에 배열된 네 번째(3:1-10)와 다섯 번째(4:1-14) 대문단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룬다. 즉 성전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주제는 교차대구구조로 형성된 환상 단락에서 중앙에 배열됨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강조된다. 이 구조적 핵심의 한 축이 스룹바벨과 연관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4:1-14)이다.

12 장절 구분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른다.

## 2)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슥 4:1-14)의 구조분석

스룹바벨과 연관된 슡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4:1-14)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예언자에게 행한 천사의 행동: 나아가 깨움	4:1
2. 환상에 대한 천사와 예언자의 대화	4:2-14
a. 환상의 내용에 대한 천사와 예언자의 대화	4:2-3
1) 천사의 질문: 무엇을 보느냐	4:2a
2) 예언자의 대답: 슡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4:2b-3
b. 환상의 해설에 대한 천사와 예언자의 대화	4:4-14
1) 슡금 등잔대에 대한 대화	4:4-10
a) 예언자의 질문: 이것이 무엇?	4:4
b) 천사의 반문: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4:5a
c) 예언자의 대답: No	4:5b
d) 천사의 설명	4:6-10
(1)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첫 번째 말씀	4:6-7
(a)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말씀의 서언	4:6a
(b) 야웨의 말씀 자체: 성전 기초	4:6b-7
① 근거: 힘이 아니라 야웨의 영으로	4:6b
② 약속의 말씀: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로	4:7a
③ 결과: 사람들의 칭송-머릿돌을 보고	4:7b
은총 외침	
(2)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두 번째 말씀	4:8-10
(a)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말씀의 서언	4:8
(b) 야웨의 말씀 자체: 성전의 완공	4:9-10
① 약속의 말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	4:9a
② 결과1: 야웨가 나를 보낸 것을 알 것이다	4:9b

③ 결과2: 사람들의 칭송-다림줄 돌을 보고 기뻐함	4:10a
④ 격려의 말씀: 야웨의 눈(일곱 금 등잔대)	4:10b
2-1') 두 감람나무: 기름부음 받은 자들	4:11-14
a) 예언자의 질문 : 두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4:11-12
b) 천사의 반문: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4:13a
c) 예언자의 대답: No	4:13b
d) 천사의 설명: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4:14

이 환상(4:1-14)은 크게 글의 형식에 따라 천사의 행동을 다루는 첫째 문단(4:1)과 천사와 예언자의 대화를 다루는 둘째 문단(4:2-14)으로 구성된다. 천사는 예언자에게 나아가 예언자를 깨웠다(4:1). 이 행동은 이어지는 천사와 예언자의 대화를 이끄는 도입부와 같은 문학적 기능을 한다.

천사와 예언자의 대화를 다루는 둘째 문단(4:2-14)은 그 내용에 따라서 환상 자체를 다루는 첫째 소문단(4:2-3)과 환상의 해설을 다루는 둘째 소문단(4:4-14)으로 구성된다. 환상의 내용을 다루는 첫째 소문단은 천사가 묻고 예언자가 대답하는 형태로 묘사되는 반면, 환상의 해설을 다루는 둘째 소문단은 예언자가 묻고 천사가 대답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첫째 소문단(4:2-3)은 ‘무엇을 보느냐’는 천사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된다(4:2a). 이 질문에 대해 예언자는 그가 본 두 개의 대상을 제시한다(4:2b-3).<sup>13</sup> 첫째는 순금 등잔대이고(4:2b), 둘째는 등잔대 주변에

13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가 말했다”(וַיֹּאמֶר, 바요메르)라고 나오지만, 문맥에 따르면 “내가 말했다”(וָאָמַרְתִּי, 바오마르)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케레(Qere)와 많은 번역들은 3인칭을 1인칭으로 수정하여 읽는다.

있는 두 감람나무이다(4:3). 예언자는 먼저 그가 본 순금 등잔대를 묘사한다(4:2b). 순금 등잔대에 대한 묘사에는 완전수인 ‘일곱’(עֶבְרִית, 세바)이라는 용어가 또 다른 완전수인 3회 반복됨으로 매우 강조된다. 예언자가 본 순금 등잔대의 모습<sup>14</sup>은 세 가지로 연결되어 묘사된다. 첫째, 순금 등잔대의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다. 둘째,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다. 셋째, 일곱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다.<sup>15</sup> 예언자는 본 두 감람나무의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에 놓여 있다(4:3). 감람나무는 일반적으로 기름의 원천이기에, 그것이 그릇 양쪽에 있다는 것은 감람나무로 인해 등불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출 27:20-21; 레 24:1-4).

예언자가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둘째 소문단(4:4-14)은 그 분량과 내용의 구체성을 통해 볼 때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 단락(4:1-14)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소문단은 위의 구조도표에서 보여 주듯 병행 구조로 배열된 네 개의 단위들로 구성된 두 개의 미세문단으로 구성된다(4:4-10, 11-14): 1) 예언자의 질문(4:4, 11-12); 2) 천사의 반문(4:5a, 13a); 3) 예언자의 대답(4:5b, 13b); 4) 천사의 설명(4:6-10, 14). 여기서 각 단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넷째 단위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각 미세문단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가장 뒤에 배열된 넷째 단위(4:6-10, 14)이다. 즉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말씀

14 등잔대는 성전 또는 성막에서 불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주요 성물이다(출 25:33-40; 37:17-24; 40:4, 24; 레 24:4; 민 8:2-4; 왕상 7:49; 렘 52:19 등). 그러나 본문에서 묘사하는 순금 등잔대의 모습은 출애굽기(출 25:33-40; 37:17-24)에서 묘사하는 성막의 등잔대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다. 본문의 순금 등잔대의 모습은 성막 또는 성전의 등잔대보다는 고대 근동의 주발이 있는 등잔대와 유사하다. David L. Petersen, *Haggai and Zechariah* 1-8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222.

15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면, 7등잔에 관이 각각 7개씩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전체는 49개의 관이 있는 것이다. 참조. Sweeney, 윗글, 605. 그러나 많은 번역들은 7이 중복된 것으로 이해하는 칠십인역(LXX)에 따라 7개의 관으로 읽는다.

에 대한 천사의 설명 단위(4:6-10)와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천사의 설명 단위(4:14)가 구조적 핵심이다.

첫째 미세문단(4:4-10)은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מַה־זֶּה, 마-엘레)라는 예언자의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4:4). 그러자 천사는 예언자에게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4:5a)고 오히려 반문한다. 이 반문에 대해 예언자는 한 개의 단어인 부정어 ‘로’(לֹא, No)만을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대답한다. 이러한 천사와 예언자의 수사학적 질문과 대답은 독자로 하여금 이어지는 천사의 구체적인 설명(4:6-10)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천사의 설명을 다루는 넷째 단위(4:6-10)는 순금 등잔대의 대화(4:4-10) 가운데 순금 등잔대에 대한 예언자의 대답 이후에 제시되고 있기에 순금 등잔대에 대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단락의 후반부(4:11-14)에서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인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 이해될 수 있기에, 순금 등잔대를 스룹바벨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순금 등잔대에 대한 예언자의 대답(4:5b)에 이어서 이 단위가 제공되지만, 이 단위는 예언자의 말에 대한 천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단위(4:6-10)는 순금 등잔대에 대한 대화를 다루는 첫째 미세문단(4:4-10)과 잘 어울리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어색함은 이 미세문단(4:4-10)에서 이 단위(4:6-10)를 강조하는 수사학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말씀을 다루는 이 단위는 선형구조로 배열된 첫째 미세문단에서 가장 뒤에 배열되는 구조적 특징과 문맥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의

16 이러한 문맥적 어색함으로 인해 통시적 경향의 많은 학자들은 이 단위가 본래의 환상 문단에 이후에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Petersen, 윗글, 224-238.

외성이라는 수사학적 특징을 통해 매우 강조된다.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제시된다(4:6-7, 8-10).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은 천사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태로 분명하게 제시되는 반면에(4:6-7), 두 번째 말씀은 야웨께서 예언자에게 전한 말씀의 형태로 설명된다(4:8-10). 첫 번째 말씀(4:6-7)은 “야웨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라는 야웨의 말씀의 서언으로 시작된다(4:6a). 이 서언은 이어지는 말씀이 야웨로부터 온 신적 권위의 말씀임을 분명히 한다. 이어서 야웨의 말씀 자체가 제시된다(4:6b-7). 야웨의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기초가 놓여 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역사의 근거(4:6b), 스룹바벨과 연관된 약속(4:7a), 그리고 그 결과로 제시되는 사람들의 칭송에 대한 언급(4:7b)으로 구성된다.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의 기초의 근거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참조. 신 8:18; 사 16:5; 삼하 17:10; 욥 31:25 등), 오직 야웨의 영으로 되는 역사로 제시된다(4:6b).<sup>17</sup>

이어서 야웨께서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4:7a).<sup>18</sup> 이 말씀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는 은유적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되는데, 이 의미는 큰 산이 눈에 보일 때는 거대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별 것 아니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큰 산은 성전 건축의 반대자를 의미할 수 있다(참조. 스 4:16).<sup>19</sup> 본문의 문맥에서 본다면 큰 산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4:10)라 할 수 있

17 ‘힘’과 ‘능력’은 군사적이나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언자 학개가 스룹바벨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보좌와 세력을 멸하고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학 2:22-23)라는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8 신약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산을 제거하는 사상이 잘 나타난다(마 17:20; 21:21-22; 막 11:22-23; 눅 17:6; 고전 13:2). 신약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상을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참조. Ralph L. Smith, *Micah-Malachi*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4), 206.

19 윗글, 206.

다. 그런데 이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성전 건축의 큰 반대가 다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있고, 성전재건의 기초 작업으로 지대를 다지는 이미지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어 폐허더미가 되었는데(참조. 미 3:12), 이 폐허의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스룹바벨이 건축의 기초로 ‘머릿돌을 내놓을 때’<sup>20</sup>에 백성 무리들은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그를 칭송할 것이다(4:7b). 즉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재건과 그것을 주도하는 스룹바벨에게 임할 것이다. 야웨께서는 천사를 통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전하고,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그의 성전재건 사역에 야웨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찬양할 것이다(참조. 스 3:13).

예언자에게 주어진 야웨의 두 번째 말씀(4:8-10)은 천사를 통해 예언자에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 예언자에게 직접 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본문은 “야웨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4:8)라고만 묘사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말씀처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연관된 것이고, 첫 번째 말씀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두 번째 말씀도 첫 번째 말씀처럼 천사를 통해 예언자에게 주어진 야웨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야웨의 말씀이 모두 말씀의 서언(4:6a, 8)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서언에 “야웨의 말씀”(יְהוָה אֱמַר, 데바르-야웨)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공통점도 있다.

야웨의 두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의 서언에 이어서 성전 완공과 연관된 야웨의 말씀 자체가 제시된다(4:9-10). 즉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sup>21</sup> 이제 야웨께서는 그가 이 사역을 마무리할

20 이 표현은 고대 근동(ANE)의 건축제의로 이해될 수 있다. B. Halpern, “The Ritual Background of Zechariah’s Temple Sons,” *CBQ* 40 (1978), 167-180.

21 이 구절은 학개서 2장 18절 이하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즉 스룹바벨은 야웨의 성

것이라는 약속하신다(4:9a). 성전 완공과 연관된 스룹바벨의 역할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약속의 결과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는 “야웨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4:9b)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너희’는 복수이고 ‘네’는 단수로 표현된다. 문맥을 통해 볼 때, 복수인 ‘너희’는 백성을 지칭하고, 단수인 ‘네’는 예언자 스가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문장은 야웨께서 천사를 백성들에게 보낸 줄을 예언자가 알 것이라는 의미이다(4:9b). 둘째는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고 멸시한 자들이 더 이상 스룹바벨을 멸시하지 않고 그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이다(4:10a). ‘다림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에벤 하베딜’(הַבֵּדִיל הָאֶבֶן)<sup>22</sup>은 건축할 때 건물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측정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그가 성전 건축의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유적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야웨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이루실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격려의 말씀이 나온다. 즉 야웨께서는 금장대의 일곱 등잔은 온 세상을 감찰하는 야웨의 눈이라고 말씀한다(4:10b). 눈은 감시하고 살피는 기능을 하고(참조. 시 66:7; 잠 15:3 등), 일곱은 완전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야웨께서 온 세상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다(참조. 대하 16:9; 욥 34:21; 시 14:2; 66:7; 잠 15:3; 겔

---

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이 구절도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22 이 용어의 문자적 의미는 ‘양철 돌’인데, 여기서 ‘양철’이라는 히브리어 ‘베딜’(בֵּדִיל)은 ‘나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파생된 수동태 명사 형태이다. 이 용어는 구약 성서에서 다림줄로 번역된 곳이 없고, 대부분 죄악 된 이스라엘을 제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언급된다(사 1:25; 슥 13:7-9). 이 문맥에서 이해할 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Sweeney, 윗글, 611-612.

1:18 등).<sup>23</sup>

두 감람나무와 연관된 천사와 예언자의 대화를 다루는 둘째 미세문단(4:11-14)도 첫째 미세문단(4:4-10)처럼 예언자의 질문으로 시작된다(4:11-12; 참조. 4:4). 여기에서 예언자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첫째는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4:11), 둘째는 등잔대의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의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4:12).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나무의 서로 다른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감람나무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sup>24</sup> 왜냐하면 이어지는 천사의 대답에서 감람나무와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4:14). 예언자의 질문에 대해 천사는 첫째 미세문단의 둘째 단위(4:5a)와 동일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한다(4:13a). 이에 대해 예언자는 첫째 미세문단의 셋째 단위(4:5b)와 동일하게 “아니오”(אֵי, 로)라는 하나의 부정어로 간략하게 대답한다(4:13b). 그러자 천사는 예언자에게 두 감람나무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sup>25</sup>를 의미하고, 그들은 온 땅의 주이신 야웨 앞에서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한다(4:14). 고대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참조. 삼상

23 여기서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참조. 사 51:4; 마 5:16 이하; 빌 2:15 등). 만약 순금 등잔대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인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참조. 속 4:11-14).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들을 빛과 생명의 하나님께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속 2:11; 사 60:1-3; 마 5:14-16; 요 1:4, 5, 9; 행 13:47).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등잔대가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한다(계 1:12, 20). Smith, 윗글, 204-205; Elizabeth Achtemeier, *Nabum-Malachi*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124.

24 차준희/유윤중 공저, 「학개/스가라/말라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18.

25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스네 브네-하이츠”(שְׁנֵי בְנֵי הַיֵּיטֵז)로, 이것을 직역하면 ‘기름의 두 아들’이다.

16:3; 왕상 1:39; 시 89:21)과 제사장(참조. 출 28:41; 29:29; 레 7:36; 민 35:25 등)이었다. 그러므로 스가랴 시대의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총독이며 다윗 왕족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라 할 수 있다. 스가랴서에서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은 네 번째 환상으로 본문 앞에 배열된다(3:1-10). 그러므로 이 구절은 환상 단락(1:7-6:8)의 중앙에 배열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을 연결하며 마무리하는 문학적 기능을 한다. 감람나무의 수명이 천 년 이상이라는 것과 두 감람나무가 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혈통의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은 다윗 계약의 두 축인 야웨의 성전과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암시한다 하겠다.

#### 4. 스룹바벨 신탁 본문들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2,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개서에서 스룹바벨 신탁(2:20-23)은 학개서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스가랴서의 스룹바벨 환상(4:1-14)은 2부로 구성된 스가랴서 전반부의 구조적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학개서의 전반부인 세 개의 신탁(1:1-2:19) 단락과 스가랴서의 전반부(1-8장)는 성전 재건이라는 공통된 주제와 동일한 날짜 공식(학 1:1, 15; 2:10, 20; 스 1:1, 7; 7:1)을 사용하는 유사점이 있다. 또한 이 두 부분은 다리오 왕 시대라는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도 서로 연결된다.<sup>26</sup> 반면에 학개서의 후반부인 스룹바벨 신탁은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왕조

26 학개와 스가랴 1-8장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이 둘만을 엮어서 다룬 대표적 주석책은 아래와 같다. Carol L. Meyers, and Eric M. Meyers. *Haggai, Zechariah 1-8* (Anchor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87); Petersen, 윗글. 학개와 스가랴 1-8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 책의 서론을 참조하라.

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룬다. 스가랴서의 후반부(9-14장)도 성전 재건을 주로 다루는 전반부(1-8장)와는 달리, 다윗 왕조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다. 또한 스룹바벨 신탁(2:20-23)의 핵심어임과 동시에 학개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 날에’(אִתְּךָ יוֹם, 바움 하후)라는 주제어는 스가랴서에 22회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19회가 후반부에 나타난다(스 2:15; 3:10; 6:10; 9:16; 11:11; 12:3, 4, 6, 8×2, 9, 11; 13:1, 2, 4; 14:4, 6, 8, 9, 13, 20, 21). 이와 같이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학개서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스룹바벨 신탁과 유사하게 먼 미래인 ‘그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학개서의 스룹바벨 신탁(학 2:20-23)은 스가랴서의 후반부, 그리고 스가랴서의 스룹바벨 환상(스 4:1-14)은 학개서의 전반부와 연계하여 상호텍스트성의 방법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 1) 스룹바벨 신탁(학 2:20-23)의 상호텍스트성

학개서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스룹바벨 신탁은 스가랴서의 후반부와 연결된다. 2장에서 다루었듯이, 스룹바벨 신탁 본문의 구조적 핵심은 야웨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직접적인 약속(2:23)이다. ‘그 날에’(אִתְּךָ יוֹם, 바움 하후)라는 주제어는 학개서에서 유일하게 이 약속에 나타난다. 이 주제어는 스가랴서의 후반부에서도 핵심어로 등장한다(스 9:16; 11:11; 12:3, 4, 6, 8×2, 9, 11; 13:1, 2, 4; 14:4, 6, 8, 9, 13, 20, 21).

학개서에서 ‘그 날’은 야웨께서 다윗계인 스룹바벨을 인장 삼아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날로 묘사된다(2:23).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한 다윗 왕조의 회복은 야웨께서 열국에 대해 철저히 심판과 함께 주어진다(2:21-22). 그러나 스가랴서의 후반부에는 그 날이 구체적으로 스룹바벨과 연관하여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날은 다윗계인 스룹바벨처럼 다윗계 직책을 지닌 자가 야웨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날로 제시된다.<sup>27</sup> 이와 같이 그 날에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질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강조하는 스룹바벨 신탁(학 2:20-23)은 스가라서 후반부에서 ‘그 날에’라는 문구의 반복과 이상적인 다윗 왕조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연결된다. 즉 그 날에 야웨께서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과 다윗의 집을 구원하실 것이다(9:16; 12:3, 4, 6, 8x2, 9, 11; 14:4, 6, 13; 참조. 2:11; 3:10). 그 날에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야웨의 사자와 같을 것이며(12:8),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은 순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13:1, 2, 4). 예루살렘의 왕인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며(참조. 9:9-10), 야웨께서는 온 천하의 진정한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14:9). 이와 같이 스가라서 후반부에서 ‘그 날’은 온전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로 확장된다.

학개서에서 스룹바벨 신탁은 그를 통해 다윗 왕조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약속을 담고 있지만, 스가라서 후반부에서는 그 약속을 넘어 다윗 왕조를 선택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종말론적 회복으로 확장된다. 비록 학개서는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미성취된 신탁으로 끝나지만, 스가라서 후반부와와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취되지 않은 이 신탁은 스가라서 후반부와와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보면 메시아 왕국의 종말론적 회복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약성경은 스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함으로써 이

27 Achtemeier, 윗글, 105; Sweeney, 윗글, 611-612. 소형근 교수는 역대기 저자가 다윗 왕조의 역사적 회복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골라 공동체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고 주장한다. 소형근,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 ‘골라’(golah) 공동체의 신학적 흐름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제28권 3호 (2022년 9월), 146-147.

신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참조. 마 1:13; 눅 3:27). 즉 신약과의 상호텍스트성까지 확장할 때, 스룹바벨 신탁은 종말론적 희망을 보여주는 기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현재적 보증의 기능도 드러낸다.<sup>28</sup>

## 2) 스룹바벨과 연관된 환상(속 4:1-14)의 상호텍스트성

3장에서 다루었듯이 스가랴서에서 스룹바벨과 연관된 신탁을 담고 있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4:1-14)은 여호수아와 연관된 환상(3:1-10)과 더불어 스가랴서 전반부(1-8장)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 구조적 핵심을 이룬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연관된 환상은 모두 성전재건과 연관된다. 즉 정결한 옷을 입고 관을 쓰게 될 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성전의 기초를 마련했던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재건의 사역을 완수할 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 구절(4:14)은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호수아와 스룹바벨)를 언급함으로 이 두 환상을 연결하며 마무리한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룹바벨 환상 문단에서 가장 강조되는 문학적 단위는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말씀을 천사가 대언한 단위(4:6-10)와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천사의 설명 단위(4:14)이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야웨의 영을 힘입어 성전재건의 사역을 완성할 자로 묘사된다. 야웨께서는 성전재건의 사역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4:6)라고 말씀한다.

---

28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469-471; Smith, 윗글, 163.

이 표현은 학개서 2장에서도 유사한 이미지로 묘사된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학 2:6-7). 즉 성전재건의 사역은 인간의 권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이다. 스가랴 4장은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선택했음을 강조한다. 즉 스룹바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4:6),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을 것이고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성전재건의 사역을 완수할 것이다(4:7, 9-10).

또 다른 강조 단위인 14절에서, 스룹바벨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순금 등잔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4:14).<sup>29</sup> 즉 스룹바벨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열방의 빛으로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는 지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자이다. 그들의 지도력은 학개서 전반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록 학개서 전반부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자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건축을 주도하는 지도자로 언급된다(학 1:1, 12, 14; 2:2, 4; 참조, 2:18). 이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성전재건을 시작했던 스룹바벨이 그 사역을 끝까지 마칠 것이라는 야웨의 약속(슥 4:9)이 성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학개서와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볼 때, 스가랴 4장에 나타난 스룹바벨과 연관된 환상은 성전재건의 전 과정이 야웨께서 부여한 스룹바벨의 지도력 하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온 백성이 힘을 다해 성전을 재건

29 스가랴 4장 14절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두 명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도 그 시대의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이라는 역사적 한계 속에서 이해하지 말라는 암시이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은 포로후기의 역사 너머에 있는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진행되고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chtemeier, 윗글, 125-126.

하라는 학개의 말씀(참조. 학 1:12, 14; 2:4)을 더욱 강화시키는 신학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5. 나가는 글

이 논문은 학개서에 나오는 스룹바벨 신탁 본문(2:20-23)과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연관된 환상 본문(4:1-14)에 대한 상호텍스트성을 다룬다. 먼저 본 논문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각 본문이 놓인 문학적 자리와 각 본문의 구조 분석적 해석을 통한 구조적 핵심을 파악한다. 스룹바벨 신탁 본문(학 2:20-23)의 핵심 단위는 ‘야웨가 말하노라’라는 ‘신탁문체’(הַנְּבִיאִים, 네움 야웨)가 세 번 반복되는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약속이다(2:23). 이 말씀은 ‘그 날’(אִתִּי הַיּוֹם, 바움 하후)에 야웨께서 스룹바벨을 취하여 인장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연관된 환상 본문(스 4:1-14)의 핵심 단위는 스룹바벨에 대한 야웨의 말씀을 천사가 해석하는 단위(4:6-10)와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천사의 설명 단위(4:14)이다. 천사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뿐만 아니라 완공까지 감당할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4:6-10),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인물(스룹바벨, 여호수아)이라고 설명한다(4:14).

이 구조적 핵심 내용들은 학개서와 스가랴서 전체의 구조적 유사점과 주제적 공통점에 근거하여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책의 형식과 주제를 통해 볼 때, 학개서 후반부에 배열된 스룹바벨 신탁(학 2:20-23)은 스가랴서의 후반부(9-14장)와 연계되고, 스가랴서 전반부의 구조적 핵심 단락인 스룹바벨과 연관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스 4:1-14)은 학개서 전반부(1:1-2:19)와 연결된다.

스룹바벨이 다윗 왕조를 회복할 자로 선택받았다는 약속(학 2:20-23)과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뿐만 아니라 완공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약속(슌 4:1-14)은 모두 스룹바벨 시대에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두 본문은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근접한 문맥과 함께 다룰 때 그 본문들의 신학적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본문(슌 4:1-14)은 성전재건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있음을 강조함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서 전반부(1:1-2:19)의 말씀을 더욱 강화시키는 신학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탁(학 2:20-23)은 스가라서의 후반부인 9-14장과 관계 속에서 볼 때 스룹바벨을 넘어서 다윗계 직책을 지닌 메시아에 의해 다윗 왕국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진행된다. 즉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분석할 때, 스룹바벨 신탁(학 2:20-23)은 역사적 문맥을 넘어서 해석의 미래 지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학개서와 스가라서에 나타난 스룹바벨 신탁과 환상 본문에 나타난 약속들은 근접한 문맥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접근할 때, 각 본문들의 신학적 기능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경식, “예언서의 사회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구약논단」 제27권 3호 (2021년 9월), 216-247.
-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제25권4호 (2019년 12월), 342-364.
- \_\_\_\_\_, “바벨론 포로 이후 초기 ‘골라’(golah) 공동체의 신학적 흐름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제28권3호 (2022년 9월), 129-153.

- 정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11권 (2001년 10월), 49-70.
- \_\_\_\_\_, 「구약성경의 구조분석: 방법과 실례」 (서울: 도서출판새영, 2020).
- 차준희/유윤중 공저, 「학개/스가라/말라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Achtemeier, Elizabeth, *Nahum-Malachi*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 Boyarin, Daniel, *Intertextuality and the Reading of Midra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 Blenkinsopp, J.,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DeVries, Simon J., *From Old Revelation to New*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89).
- Dorsey, Davi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 Halpern, B., “The Ritual Background of Zechariah’s Temple Sons,” *CBQ* 40 (1978), 167-180.
- Kessler, J., *The Book of Haggai: Prophecy and Society in Early Persian Yehud* (VTSup, 91; Leiden: E. J. Brill, 2002).
- Kristeva, Julia,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L'avant-Garde À La Fin Du Xixe Siècle, Lautréamont Et Mallarmé* (Paris: Éditions du Seuil, 1974).
- Magness-Gardiner, Bonnie, “Seals, Mesopotamian”, *ABD* V, 1062-1064.
- Meyers, Carol L. and Eric M. Meyers, *Haggai, Zechariah 1-8* (Anchor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87).
- Petersen, David L., *Haggai and Zechariah 1-8*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 Sanders, James A., “Intertextuality and Canon,” in *On the Way to Nineveh: Studies in Honor of George M. Landes* (ed. Stephen L. Cook and S. C. Winter; Atlanta: Scholars Press, 1999).
- \_\_\_\_\_, *Torah and Can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_\_\_\_\_, *Canon and Community: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Smith, Ralph L., *Micah-Malachi* (WBC: Waco: Word: 1984).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s. II (Berit Olam;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검색어

스룹바벨 신탁, 상호텍스트성, 구조분석, 학개 2:20-23, 스가랴 4:1-14

[ ABSTRACT ]

## Theological Function of the Zerubbabel Oracle Texts: Through Structural Analysis and Intertextuality

Seok-Gyu Jung

Seoul Hanyou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the Zerubbabel oracle texts(Hag. 2:20-23; Zech. 4:1-14) through structural analysis and intertextuality.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se two texts to identify their structural core. Next, the paper analyzes each text's structural core through intertextuality with its close context to elucidate its theological function. Specifically, the Zerubbabel oracle text(Hag. 2:20-23) is analyzed in relation with the second half of Zechariah(chs 9-14), while the visionary text(Zech. 4:1-14) i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first half of Haggai(Hag. 1:1-2:19). Through this analysis, the Zerubbabel oracle in Haggai functions as a starting point for the prophecies of the second half of Zechariah, which contains the eschatological restoration of the Davidic kingdom by a Messiah who holds the Davidic office beyond Zerubbabel. The vision in Zechariah 4 emphasizes that the entire temple rebuilding process is under the leadership of Zerubbabel, given by God, thereby reinforcing the theological function of the first half of Haggai, which calls for all members to unite to rebuild the temple.

www.kci.go.kr

key words

Oracle of Zerubbabel, Intertextuality, Structural Analysis, Haggai 2 : 20-23,  
Zechariah 4 : 1-14

투고일 : 2025년 10월 20일

심사일 : 2025년 12월 12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12월 22일

[www.kci.go.kr](http://www.kci.go.kr)